

성북구청 환경과 인터뷰

Q) 성북구청 환경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현재 성북구청 환경과는 환경기획팀, 기후변화대응팀, 에너지관리팀, 환경보전팀 총 네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기획팀에서는 환경과의 전반적인 부서 관리를 담당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나 폐수·토양 오염 지도 및 감시 등도 환경기획팀의 업무입니다. 기존에 환경교육팀에서 담당하던 성북구 주관 그린리더 교육 등 환경 교육업무도 얼마 전 팀 간 통합이 이뤄지면서 환경기획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대응팀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구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들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50개의 에너지 절약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에너지 절전활동을 하는 절전소 사업이 있습니다. 절전소는 다달이 모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년 대비 절약 성과를 비교합니다. 구에서는 절전소 소장님들을 모셔서 월례회의를 하고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절전용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그 외에 전산 연동을 통해 월별 전기, 가스, 수도 월별 사용량을 알아보고 전년 대비 10% 이상 절약 시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도 성북구민은 현재 무려 50% 이상이 가입하여 적극적인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에서는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판매소 인·허가 관리 및 영업 감시, 도시가스나 LPG 충전소 수급 조절,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난방 단열시설 개선사업 등 실질적인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주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팀은 공사장 소음이나 생활소음 등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만한 환경 관리, 사업장의 석면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이륜차 매연 관리,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원 유해물질 검출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담당합니다.

Q) 구청에서 환경문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환경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성북구청의 7대 전략과제 중 환경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성북을 만들자는 과제로 '온실가스 없는 성북',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세부사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를 들면 성북구 주민 대상으로 시행하는 '우리 동네 절전왕' 선발이 있는데요, 가구 수별로 전기를 가장 많이 절약한 세 가구씩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수상자 외 모든 참가자에

게 에너지 절약용 멀티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학교와 연계해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동덕여대 환경동아리와 함께 1년에 한 번씩, 방학 중에 운영하는 어린이환경학회 운영이 있습니다. 매 해 어린이 40여명을 선발하여 활동하는데요, 올해 들어 21년을 맞아 21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성북구청 환경과는 환경 정책 수립에서 여러 가지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에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구청에서 좋은 정책들을 시행하더라도 학생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는 저조한 면이 있는데요, 혼자서 참여하기가 어렵다면 환경 관련 동아리 등을 통해 단체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무언가 연계하여 활동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성북구청의 문을 두드리주시기 바랍니다.

염재호 총장, 서울시 에너지 복지시민기금 이사회 이사로 선임

2015년 서울그린캠퍼스협의회 회장인 염재호 총장이 서울시 에너지 복지 시민기금 이사회 이사로 선임됐다.



시민이 스스로 아낀 에너지를 에너지가 꼭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각계각층 25명이 참여하는 이사회로 구성됐다.

본 기금은 시민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등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절약해 얻은 이익을 후원금으로 기부, 에너지 빈곤층을 돕는 데 쓰인다. 에너지 빈곤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요금, 난방비를 포함한 에너지 사용료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2020년까지 총 30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LED 전등 교체, 단열 시공, 출입문 보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미니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에 쓰인다. 에너지 절약·효율화·생산에 동참하는 시민 누구나 기금에 참여할 수 있다. 후원금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등, 전열장판, 에코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다. 참여방법과 기금 사용내역은 서울에너지복지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출범식에서 "에너지복지기금은 풀뿌리형 에너지 나눔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생산·효율화를 통한 원전하나줄이기 혜택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 지구를 지키는 나눔을 함께하세요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에서는 보다 친환경적인 캠퍼스 운영을 위하여 녹색환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눔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고려대 그린캠퍼스 홈페이지(kugc.korea.ac.kr)의 녹색환경기금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의 담당부서에 연락 및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에너지안전팀
전화: 02-3290-2760, 2766
홈페이지: <http://kugc.korea.ac.kr>



INTERVIEW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조용성 교수



Q)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발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경제학적 척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에는 상충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추구하자면 다른 하나는 희생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922

년 브라질 리우 회의를 기점으로 기존에 상충관계로만 여겨지던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같이 win-win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자연 훼손으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더 많은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지만, 그렇다고 규제와 보호가 지나치다보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개념이지만, 얼마나 더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린벨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었던 구역을 지정 해제하는 문제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도심 녹지 확보를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린벨트로 지정된 해당 구역 거주민들의 이익은 침해됩니다.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타협의 정도, 보상 범위의 문제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호 중 항상 어떤 특정 부분은 희생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로 지정된 구역 거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다른 구역의 사람들이 보상을 하여 모두가 공평하게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희생에 대해서 보상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은 이전 top-down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던 시절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불가피하게 피해가 가야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Q) 교수님께서 과학이 발전하면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신기술이 개발되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기술이 해결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만, 문제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 차후에 개발되는 무엇인가가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시점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미뤄두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우리가 이미 그 이슈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그 기술이 필요한 시점과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Q) 모든 정책 결정이 자본주의 제도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어떤 사상이나 대체 가능한 요소들이 있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우리는 경제학적 개념인 효율성, 형평성을 흔히 이야기하지만 환경 문제에서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주체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는 주체가 같은 경우보다는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산업개발국가들이 이미 오염시켜놓은 환경은 현재 투발루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 부조리한 일입니다.

환경오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큼니다. 예컨대, 자가용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운전자들에게 자가용을 타지 말라고 규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자가용 운전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등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현재는 전기세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전기를 소모하고 해외 기업들까지 전기를 쓰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최종에너지이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은 손실됨에도 전기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기를 더 쓰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전기세 등을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에너지 쿠폰 제공이나 지원 제도 등 별도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나눔을 함께하는 환경토크콘서트와 KU 그린바자회

본교 그린캠퍼스가 주관하는 ‘KU환경토크콘서트’가 ‘기후변화의 과거·현재·미래-에너지 전환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5월 18일 오후 4시 문과대 서관 132호에서 열렸다.

이날 콘서트는 조용성(생명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포함해 신동만 KBS PD, 이은희(서울여대 원예조경학과) 교수, 하승수 녹색당 위원장 등 9명이 패널로 참석했으

며, 청중 50여 명이 찾았다. 강연자들과 청중들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8, 19일에는 그린캠퍼스가 교내 환경동아리 쿠셉(KUSEP), 인액터스(ENACTUS)와 아름다운가게, (주)녹색건강나눔 등과 함께 KU그린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바자회에선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화분을 나눠주고 자전거 발전기를 체험하게 하는 등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됐다.

인액터스는 부러진 야구방망이를 업사이클링(Upcycling)해 디자

인 소품으로 만드는 ‘비스퀘어드(Bsquared)’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름다운 가게는 교내외 학생들이 기증한 머리핀, 팔찌, 옷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수익금 중 일부는 네팔에 후원할 예정이다.

고려대 에너지안전팀은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으며, 에너지 사용 증가는 극심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이어져 자연환경생태가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생태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환경의식 캠페인 차원

에서 5월 학생들의 축제기간에 맞추어 그린바자회와 환경토크콘서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KU 환경콘서트 포스터

KU 그린캠퍼스 활동

에너지 감시활동



그린캠퍼스 7기 홍보대사들은 임명 기간인 2015학년도 여름학기 중 본교 건물을 순찰하며 에너지 감시 활동을 벌였다.

감시 활동 결과 방학 동안 사용되지 않는 대부분의 빈 강의실은 냉방 및 점등기구 차단 상태가 양호했으나, 일부 강의동은 냉방기가 작동 중인 동시에 창문이 열려 있거나 사람이 없는데도 복도 조명이 켜져 있는 등 다소 미흡한 점도 보였다.

이에 홍보대사들은 감시활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 상태가 미흡한 점을 직접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로 작성하는 등 교내 에너지 관리 효율을 제고하는데 힘썼다.

그린캠퍼스 벤치마킹 및 견학

4월 13일 오후 3시 광주여고 교사 및 학생들은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벤치마킹 및 견학 행사를 가졌다. 중앙광장 종합상황실 및 에너지안전팀 사무실에 열린 본 행사에서 광주여고 측은 관리자 에너지안전팀의 교직원들로부터 본교 그린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존활동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그린캠퍼스 현장 견학중인 광주여고 학생들

서울시, '옥탑방 쿨루프 캠페인' 진행



서울시는 옥상의 색깔을 바꿔 열섬현상 완화와 냉방 에너지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쿨루프(Cool Roof)'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의 홍보와 확산을 위해 옥탑방 옥상에 무료로 흰 차열 페인트를 칠해주는 캠페인도 추진한다.

문의는 02-6011-2211 및 facebook.com/groups/whiteroofcoolcity.

"생활 속 환경기술 아이디어 뽑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은 전국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청소년·대학생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6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포스터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환경기술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활용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정과제인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를 실현하기 위해 열린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개인 또는 팀(2~3명 구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사이트(eco-techfair.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에 9월 7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eco-idea@keiti.re.kr)로 접수하면 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우수한 아이디어의 경우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완하여 환경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은 초·중·고·대학 부문에서 각각 1개 팀씩 총 4팀이 선정되며, 각각 환경부장관상(초등·대학) 및 교육부장관상(중등·고등)과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에너지 축제의 장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규모를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에너지 고효율에너지관, 신재생에너지관, LED금융관 등 다양한 특별관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가 선포하고 주도해 온 에너지신산업 특별관을 구성해 전기차, ESS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의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2015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은 전시회와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 전 에너지산업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뜨거운 에너지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녹색시민 양성 프로그램 성황리에 마무리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서울시 녹색시민 양성 프로그램이 7월 30일 8주간의 일정을 거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고 녹색시민으로서의 행동을 고민하는 단체 혹은 개인 참가자들은 향후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리더로서 활약할 것이다.



▲ 서울시 녹색시민 양성 프로그램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7기

KU 그린캠퍼스

그린캠퍼스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닌 소비주체인 학생 및 교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의 그린캠퍼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홍보 및 문제현황 개선을 위해 일선에서 그린캠퍼스 활동을 담당할 학생단체로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학생-학교 사이의 소통기구로서 의견조율 및 그린캠퍼스 활동을 진행할 홍보대사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단순한 교내 에너지 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그린캠퍼스 관련 전반적인 활동 진행을 모색하고 학생 스스로의 참여를 통한 환경 변화 및 능력 증진을 권장하고 있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란?

2012년 3월 2일에 신설된 본교 에너지위기관리대를 탐은 근래에 증가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 이상 기후 등의 기후문제에 주목하여 다양한 에너지 절약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다. 캠퍼스 내의 전반적인 전력 사용량을 관리하는 활동 외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그린캠퍼스에 관한 인식을 홍보하고 실천을 이끌어내는 "홍보대사 활동"이 있다.

2012년 7월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1기로 시작된 이 홍보대사 활동은 어느덧 7기를 배출하였다. 매년 구성원은 달라지고, 방향에만 활동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홍보대사들은 열정과 적극성으로 교내 에너지 감시 활동, 그린캠퍼스 홍보활동을 하는 등 본교를 그린캠퍼스(Green Campus)로 만들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그린캠퍼스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과 학교 사이의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교내 에너지감비 감시 업무뿐만 아니라 그린캠퍼스 관련 활동 진행과 참여를 통해 본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Green Campus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 환경과 에너지 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다소비 기관인 대학이 주도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활동이 큰 힘이 될 것이다.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주요역할

- 에너지 감시활동
- 그린캠퍼스 홍보활동
- 그린캠퍼스 이벤트
- 교내 외 단체 및 기업체 연계활동

녹색 성북 그린캠퍼스 협의회



성북구청
SEOGBUK-GU OFFICE



고려대학교



국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서경대학교
SEOKYEONG UNIVERSITY



성신여자대학교



한성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온실가스 목표관리협의회

온실가스 목표관리에 대응하기 위한 자발적 실무협의체입니다.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양대학교



▲ 그린캠퍼스 7기 홍보대사.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표소휘(심리13), 마국진(중문14), 황재원(공공행정12), 고상우(통계13), 김경준(미디어12), 한중수(국문10), 이재경(한문15).

KU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7기 기획안 발표회



2015년 6월 26일 중앙광장 120호에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7기 기획안 발표회가 진행됐다. 홍보대사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그린캠퍼스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및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담당자의 피드백이 이어져,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이 날 발표회를 통해 선정된 기획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KU 그린캠퍼스 7기 홍보대사 위촉식



여름학기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7기들의 위촉식이 7월 3일 오전 10시경부터 약 1시간가량 관리처장실에서 이루어졌다. 관리처장이 직접 한명씩 위촉장을 나누어주며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홍보대사 7기 한중수(국문10), 김경준(미디어12), 고상우(통계13), 표소휘(심리13), 이재경(한문15), 마국진(중문14), 황재원(공공행정12) 전원이 참가했다. 위촉장 수여식 이후 관리처장은 홍보대사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KU 그린캠퍼스 활동

그린캠퍼스 보틀 배포 행사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7기는 교내 일회용 컵 낭비 절감을 위해 그린캠퍼스 마이보틀 배포 행사를 진행하였다. 본 배포 행사는 인문계 중앙광장과 이공계 하나스퀘어 지하에서 각각 이루어졌으며, 그린캠퍼스 7기 활동 중 최초로 진행된 오프라인 홍보 이벤트였다.

사전에 포탈, 고파스, KU그린캠퍼스 페이스북 등 온라인 공지를 통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고려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각 행사 장소에서 보틀 배포가 이루어졌다. (설문 결과는 6면에 계속) 행사 시작 전부터 많은 분들이 보여주시는 열띤 관심으로 배포 시작시각인 12시부터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준비된 보틀 수량이 소진되었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광장에서는 카페티아 모 접장이 특별히 후원한 종합사탕세트를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께 함께 배부하며 홍보활동을 더욱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절전 콘센트 설치

2015년 7월 28일 KUSEP과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이 중앙광장에 절전콘센트를 설치했다. 절전 콘센트는 지정된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아이디어 상품이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도 전력 소모가 됐던 예전과 달리, 대기전력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설치 장소는 남녀 화장실과 전광판, 유니스토어 및 행정 부서 등이다.



▲ 중앙광장 의료공제 센터에 절전 콘센트를 설치하는 홍보대사.

그린 캠퍼스 UCC 제작

그린 캠퍼스 7기 홍보대사들은 교내 시설물 및 환경에 대한 고대인들의 관심을 독려하면서, 더불어 <KU 그린캠퍼스>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했다. KUBS 측에 기획, 촬영 및 편집에 걸쳐 영상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을 전부 위임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올해는 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영상 기획안을 제시한 뒤 이를 KUBS 측과 조율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 측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기획을 마친 뒤, 8월 6일 오전 10시 경부터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 촬영에 돌입했다. 완성된 UCC는 향후 2015 고연전 스타디움 영상 및 캠퍼스 내에 설치된 그린캠퍼스 홍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될 예정이다.



▲ 고려대학교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와 KUBS가 함께한 영상물은 향후 캠퍼스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홍보대사 현장 견학



▲ 선유도공원에서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은 선유도 환경재생 생태공원과 SH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을 견학했다. 양화대교 부근에 위치하며 과거 쓰레기 매립지이자 정수장 건축물이 들어섰던 선유도 일대는 현재 서울시에 의해 테마 식물원, 환경 놀이터, 환경 교실 등이 자리 잡은 생태공원으로 탈바꿈했다.

주거 기피시설이 위치하던 장소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탈바꿈한 것에 감탄한 홍보대사들은 목동에 위치한 SH공사 집단에너지 사업단으로 이동했다. 유럽에서 시작된 에너지 재활용 및 절약 사업인 집단 에너지 사업은 개별난방으로 소요되는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키며, 낭비될 수 있는 잔열을 재활용하는 경제적인 사업이다. 홍보대사들은 담당자의 가이드와 함께 발전소 내부와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집단 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다.

서울 근교에 있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재활용 사업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직접 선정 및 견학함으로써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의 소명의식을 살리고 차기 홍보대사를 위한 벤치마킹 자료를 축적했다.

▼ 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KU 그린캠퍼스 활동

중앙광장 일대에 컵 재활용 통 설치

그린캠퍼스 홍보대사들이 중앙광장의 쓰레기통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가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분리수거를 생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컵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먼저 수거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미화원분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미화원분들의 업무를 과도하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앙광장에 버려지는 쓰레기 현황과 수거함 설치의 예상 효과를 알기 위해 중앙광장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분을 대상으로 하여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로 재활용 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이 높으며 수거함 설치로 인해 미화원분들의 업무가 늘어나나 쓰레기 분리수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7월 21일 오전 10시에 학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중앙광장 유선 열람실 앞과 인근에 카페가 위치한 중앙광장 ATM기 옆에 분리수거 통을 설치했다.

계절학기가 모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수거함을 사용해 상당한 수요가 있음을 보였다. 설치 당시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정에서와 같이 플라스틱 분리수거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종이, 비닐, 폐휴지, 음식물 등 분리수거할 수 없는 폐기물을 수거함에 함께 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설치 초기에 심하게 나타나고 점차 개선됐으나 일반쓰레기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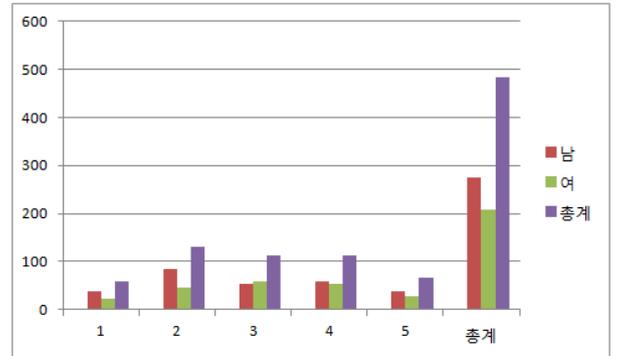
설치 후 약 2주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설문조사로 학생들의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다수의 학생이 현재 설치된 2개 이상의 수거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수거함이 중앙광장에만 설치돼 수거함을 보지 못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수거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존의 쓰레기통과 다르게 디자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활용 표시를 확실히 해달라는 답변이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플라스틱 수거함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하여 학생들이 수거함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심하게 일반쓰레기통으로 사용했던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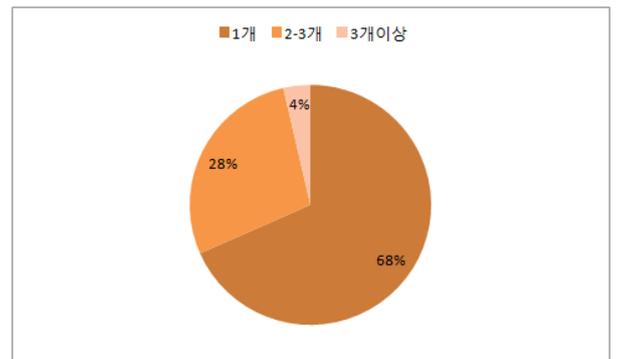


◀ 7월 21일 중앙광장 일대에 2주간 시범 운영된 컵 재활용 통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반응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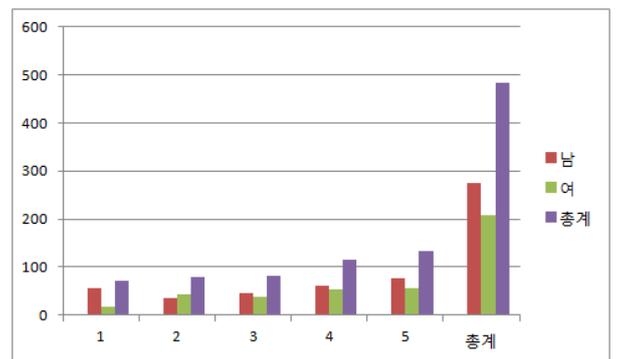
마이보틀 설문 결과 (총 응답자 484명)



‘귀하는 평소 일회용 컵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1: 전혀 사용 안 함 ~ 5: 매일 사용함



‘일회용 컵을 매일 사용하신다면 하루에 몇 개 정도 사용하십니까?’



‘귀하는 평소 텀블러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십니까?’
1: 전혀 사용 안 함 ~ 5: 매번 사용함

고려대학교 Green Campus 뉴스레터 6호



발행인: 관리처장

발행처: 에너지·안전팀

주소: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중앙광장 108호

편집인: 백완중

편집기자: 교상우, 김경준, 마국진, 이재경, 표소휘, 한종수, 황재원

전화: 02-3290-2765 홈페이지: kugc.korea.ac.kr

KU 그린캠퍼스 활동

<프라미스드 랜드 Promised Land, 2012> 감상문

‘나보다 모두를 생각하며, 돈 앞에서 소신을 지키고, 삶의 터전land으로서 지구를 항상 아낄 수 있습니까?’



맷 데이먼이 각본을 쓰고 구스 반 산트 감독이 연출을 맡은 <프라미스드 랜드, 2012>가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 '글로벌'사의 잘 나가는 협상 전문가 스티브(맷 데이먼)는 뉴욕 본사의 부사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마지막 협상지인 맥킨리 농지로 향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원시키며 마을 주민들을 설득한다. 그 와중 MIT 공학박사 출신으로 은퇴 후 과학교사를 하고 있는 프랭크 에이츠와 환경단체 '아테나'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글로벌'의 협상을 방해하는 더스틴 노블(존 크래신스키) 등과 맞닥뜨리게 되며 일생일대의 변화의 순간을 맞게 된다.

영화는 우리에게 묻는다. “여긴 죽어가고 있거나 이미 죽어버렸다”는 스티브의 말처럼, 우리에게 ‘소소한 행복, 절약하는 삶, 포기할 줄 아는 여유’ 같은 것은 이미 소생 불능 상태의 옛 것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포기할 만한 것인가. 지구라는 한정된 땅land 위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행복은 “신화 같은 상상”이 될 수도, 혹은 ‘약속된 터전 Promised Land’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다.

지구는 말이 없고,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다.

- 7기 홍보대사 한중수(국문10)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줄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공약)(INDC)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5억3590만t 배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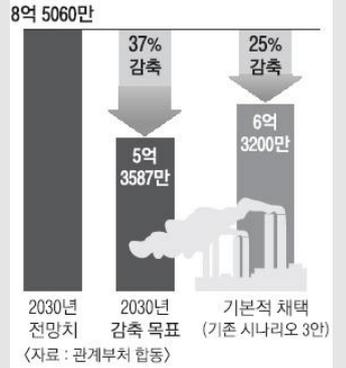
INDC는 2020년 이후 형성될 신(新)기후체제 하에서 각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를 자발적으로 정해서 유엔에 제출하는 것이다. 선진국들만 탄소 감축의무를 졌던 교도의 정서 체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감축의무를 지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과정을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계기로 보다 적극 활용해 나가고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당초 제시한 4개안보다 감축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부문 감축률은 12%(시나리오2 19.2% 감축안) 수준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확정

(단위 : t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어 “의욕적인 감축 목표 제출로 정부의 ‘저(低)탄소 경제 지향’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되, 국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등 산업계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이날 유엔(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암골 호랑이와 북극곰의 우정

안암골 호랑이와 친구들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KU GREEN CAMPUS
고대의 붉은열혈, 고대의 녹색실천

그린캠퍼스 실천사항

- ▶ 빈 강의실 소등
- ▶ 일회용품 줄이기
- ▶ 냉·난방시 현관문 및 창문 닫기
- ▶ 음식물 남기지 않기
- ▶ 쓰레기 분리 수거
- ▶ 개별 에어컨 및 난방기 사용자제
- ▶ 가까운 출근하기
- ▶ 사용하지 않는 가구의 전원플러그 뽑기

그린캠퍼스를 실천하여 온실가스를 줄입니다!

실내 권장 온도
 낮 28℃ 이상
 낮 20℃ 이하

고려대학교 환경처 | 에너지지원팀 | 그린캠퍼스 문의 02-3200-2765